

# 강진군, 화훼농가 직거래판매 운영 현장 방문

## 절화수국 재배 법인 '그린화훼영농법인' 찾아 격려 코로나19 대응 청자골 수국·장미 직거래판매 개시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관내 절화수국 재배 법인인 그린화훼영농법인(대표 김양석)을 찾아가 격려하고 화훼 직거래를 통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강진 '절화수국'은 관내 19농가, 6.2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전남도내에서 91%,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미'는 33농가, 15.3ha로 전남 69%, 꽃작약은 50농가 24ha로 전남 재배면적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강진군은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특히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판매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축소, 취소되면서 꽃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대내외적으로 수국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날

로 커지고 있다. 특히, 매년 생산량의 90%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강진 수국 농가는 일본 화훼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엔화 가치 급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청자골 화훼 직거래판매 운동'을 추진하고, 직거래 판매를 통해 2020년도에 8억 원, 2021년도에 10억 원 매출을 달성하며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현재 절화수국은 4월 중순부터 그린화훼법인 홈페이지(<https://greenflower2100.mysoho.com>) 또는 네이버스토어팜(<https://smartstore.naver.com/gjgreenflower>)을 통해 직거래판매를 개시 운영하고 있고, 장미는 우체국쇼핑을 통해 직거래 할인 판매행사 내달 5일 까지 실시한다. 꽃작약은 다음달 5.10일 이



후부터 직거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강진군 화훼단지 직거래판매를 통해 화훼 농가의 어려운 경영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청정지역 남도의 깨끗한 바람과 온기로 가꾼 예쁜 꽃으로 눈과 마음에 힐링을 얻으시라"며 꽃 소비 촉진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별난가족 별난캠핑' 전문캠프 운영...선착순 예약

장흥군 정남진전문과학관에서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반짝이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별난가족 별난캠핑' 전문캠프를 운영한다.

'별난가족 별난캠핑' 5월부터 관측 최적기 주말에 유치 자연휴양림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전문캠프는 일반가족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단체를 대상으로 총 8회 운영되며 매주 8가족(32명 내외)을 선착순 예약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문캠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전남 과학문화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캠프가 진행되는 1박2일동안 천체망원경을 조작하여 실제 별을 관측하는 방법부터 천체 관측,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태양관측안경 만들기, 볼록렌즈를 이용한 골판지망원경 만들기,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별자리 어플 사용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전문과학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푸른 자연 속에서 하늘의 별과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방법 등은 정남진전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남진전문과학관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흥=김도영기자

# "깨끗한 숙박·친절한 손님맞이" 땅끝해남 관광 재개 분주

해남군, 숙박업소 친절교육·환경정비로 새 단장 완료

해남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관광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새 단장과 함께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 나서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4월 21일부터 5일간 해남군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 권과 땅끝, 우수영권의 숙박업소 37개소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침구류 청결관리 실태, 업소 환경관리 실태, 요금표 게시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별점검에 이어서 숙박·음식업주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 관광지 권역별 친절교육을 순회하며 실시하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제주 90분' 신조 쾌속선 산타모니카호 5월 7일 취항



진도군에서 제주까지 90분대에 주파하는 항로가 새롭게 개설된다. 진도군과 씨월드고속웨리(주)(회장 이혁영)는 오는 5월 7일(토) 진도항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산타모니카호' 신규 취항에 앞서 6일(금) 오후 취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조 쾌속카페리선 '산타모니카호'는 정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세

계적으로 우수한 쾌속카페리 조선소인 호주의 INCAT 사(社)에서 건조했다. 길이 75.7m, 너비 20.6m, 높이 21m, 국제톤수 3,500t 규모로 606명의 여객과 86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4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카페리선이다. 새로운 제주 뱃길이자 육지에서 제주를 연결

진도군은 진도항에 임시 여객선 터미널과 전수 공간, 부두 접안시설, 여객 탑승과 차량 선적 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쾌속 카페리 취항으로 관광객과 함께 자동차, 건설장비, 농산물, 생활필수품 등의 활발한 운송을 통한 항로의 빠른 정착과 함께 진도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타모니카호는 고객의 욕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편안하고 고급화된 좌석 구비로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침으로 운영된다.

여객 606명·승용차 86대 동시 수송...비즈니스석 등 편안·고급화된 좌석  
보배섬 진도 관광·숙박·식당·교통·특산물 판매 등 관광객 유치 준비 박차

하는 국내 최단거리·최단시간 항로인 진도-제주는 직항 운항 시 9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특히 '90분의 기적! 진도와 제주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 관광 활성화와 교통권 확대에 나선다. 항공기와 같은 최고급 좌석인 비즈니스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석, 다도해의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는 오션뷰석 등의 좌석제가 운영된다. 선내에는 파riba게트 등의 편의시설도 운영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